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7권 3호, 2011, 한국보육지원학회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7, No. 3, 2011, pp.125~141  
Korean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중학교 청소년의 부모간 갈등과 자아분화간 관계에서 특질불안이 미치는 매개 효과

The Mediation Effects of Trait Anxiety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s' Self Differentiation and Parents'  
Marital Conflicts

한신애(Han, Sin-Ae)\* · 민하영(Min, Ha-Yeoung)\*\*

본격적인 청소년기로 진입하는 중학교 청소년의 건강한 자아분화 지원에 도움을 주고자, 중학교 청소년의 자아분화에 미치는 부모간 갈등과 특질불안의 영향을 특질불안의 매개 효과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지역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 3 남녀 청소년 252명을 대상으로 Skowron과 Fiedlander(1998)의 자아분화(DSI-R) 척도를 기초로 정경연(2007)이 개발한 자아분화 척도, Spielberger(1973)의 특질불안 척도(STAIC) 척도, 권영옥과 이정덕(1997)이 개발한 아동이 지각한 부모갈등 척도를 사용하여 자료수집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프로그램의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단순 및 중회귀분석을 통해 유의수준은 .05 미만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중학교 청소년의 자아분화는 부모간 갈등에 의해 부적적으로 영향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간 갈등이 높을수록 중학교 청소년의 자아분화는 낮게 나타났다 둘째, 중학교 청소년의 특질불안은 부모간 갈등에 의해 정적으로 영향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간 갈등이 높을수록 중학교 청소년의 특질불안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중학교 청소년의 자아분화에 미치는 부모간 갈등의 부적인 영향력은 청소년 자신의 특질불안이 통제될 때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 청소년의 자아분화에 미치는 부모간 갈등의 부적인 영향력이 중학교 청소년 자신의 특질불안에 의해 부분매개 됨을 시사하는 것이다.

주제어: 중학교 청소년의 부모간 갈등, 특질불안, 자아분화

\* 제1저자: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hymin@cu.ac.kr

## I. 문제제기

인생의 각 발달단계마다 놓여 있는 발달과업 측면에서 청소년기를 바라보면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과업은 자아정체감 형성이다(Erikson, 1968). 나는 누구인가에 관한 자아정체감 형성은 건강한 성격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자아정체감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는 청소년기에 성공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 할 수 있다. 성공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건강한 자아분화를 지원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자신이 태어난 원가족으로부터 개별화됨을 의미하는 자아분화는 청소년기 중요 발달과업 중 하나인 자아정체감 형성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지적(문은미, 최명선, 2008; 최인재, 2007)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아분화란 Bowen(1978)의 가족체계이론에서 제시한 핵심 개념으로 미분화된 가족자아덩어리에서 자신을 분리 독립시켜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자신을 가족자아에서 분리시키는 과정은 인지와 정서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인 정신 내적 측면과 자신과 다른 사람을 분리시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인 대인 관계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다(Bowen, 1978; Kerr & Bowen, 1988). 정신 내적 측면에서의 자아분화는 정서적 성숙을 의미한다. 인지적 기능이 정서적 기능으로부터 얼마나 분화되어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성과 감정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인 관계적 측면에서의 자아분화는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타인과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타인의 가치와 신념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일관된 신념에 따른 행동을 유지해나갈 수 있는 능력인 것이다(이명옥, 하정희, 2007).

이와 같이 자아분화는 정신 내적 측면과 대인 관계적 측면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진 사람은 사고와 감정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 자제력이 있고 객관적이다. 또한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융통성 있으며 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있을지라도 효율적으로 행동한다.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서 명확하게 사고하며 신념에 따라 행동할 뿐 아니라 타인의 가치나 신념을 존중하면서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주체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려는 특성을 지닌다(Bowen, 1978). 이러한 자아분화는 성인기 결혼만족도, 결혼안정성, 가족기능, 부부간 적응 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김남진, 김영희, 2010; 이소미, 고영건, 2009; 이창만, 1992; 조은경, 정혜정, 2002; Skowron, 2000)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기의 건강한 자아분화는 청소년기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 형성 뿐

아니라 성인기 성공적 환경 적응을 위해서라도 가정과 환경에서 관심 있게 지원되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아분화는 가족의 상호작용의 결과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지적(Bowen, 1978)될 만큼 가족 관계의 질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부모-자녀관계의 질은 자아분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질적으로 부모의 애정적이며 수용적인 양육행동(백양희, 1998)이나 개방적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자아분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갑숙, 전영숙, 2009). 그러나 부모-자녀관계 뿐 아니라 부모간 관계도 가족관계의 질을 나타내는 중요 지표이므로 청소년의 자아분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간 갈등은 부모-자녀 관계만큼이나 청소년기 자녀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해도 부모간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모간 언어적 공격이나 신체 가해의 위협 등은 자녀에게 스트레스, 좌절감, 무기력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유발시킴으로써 자녀의 적응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민식, 오경자, 2000)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고려해 볼 때 부모간 갈등은 가족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의 질을 반영하는 변인으로써 자녀의 적응문제인 자아분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여진다. 자아분화는 가족의 기능인 가족의 심리적 상호작용 즉 가족의 역동성에 주목하면서 발전된 개념이지만 청소년의 자아분화를 부모간 갈등과 같은 가족의 역기능적 상호작용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자아분화가 부모-자녀간 관계에 의해 발전됨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자녀의 발달이 부모-자녀간 미시체계 뿐 아니라 미시체계간 관계인 중간체계에 의해서도 영향 받는다는 사실(Bronfenbrenner & Morris, 1998)을 고려해 볼 때 중간체계라 할 수 있는 부모간 갈등은 자녀의 자아분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여진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분화가 가족의 심리적 상호작용의 질을 반영하는 부모간 갈등에 의해 유의하게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가족 안에서 경험되는 부정적 정서는 자아분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자신이 스스로 적응할 수 없다고 느끼는 일에 당면했을 때 경험되는 부정적 정서(오경자, 1992)인 불안은 자아분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Bowen, 1978)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아분화가 낮은 사람은 불안이나 우울감이 크다고 보고(Peleg-Popko, 2004)되고 있으나 이때의 불안은 부정적인 사건이나 불행이 장차 닥칠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느끼는 상황적이며 일시적 기분(Barlow, 1988) 상태인 상태불안을 의미한다. 상태불안이 일시적 불안을 나타내는 개념이라면 특질불안은 비교적 안정되고 변화하지 않는 개인적 불안 성향을 말한다(Spielberger, 1972). 이러한 특질불안은 개인의 성격 특성인 기질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자아분화의 선행변인으로 역할하면서 자아분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질불안이 자아분화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으로 역할 한다는 전제는 자아분화가 기질적 요인에 의해 영향 받는다는 선행연구(조규관, 송근혜, 2010) 및 청소년기부터 발달하기 시작하는 자아분화와 달리 특질불안은 생애초기부터 발달하는 성격특성(Buss & Plomin, 1984)임을 고려해 볼 때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를 지지할 선행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특질불안과 자아분화간 관계의 유의성을 살펴봄으로써 개인의 성격특성인 특질불안이 가족 안에서 경험하는 불안처럼 자아분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이러한 특질불안은 부모간 갈등이 자아분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매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예측은 부모간 갈등과 자녀의 적응적 행동간 직접적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주장(Grych & Fincham, 1990)을 토대로 부모간 갈등과 자녀의 적응적 행동 사이를 매개하거나 중재하는 변인 연구(송은하, 방희정, 옥정, 정은정, 2008; 장진아, 신희천, 2006)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부모간 갈등이 자아분화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라기보다 부모간 갈등으로 인해 발달하기 쉬운 자녀 자신의 성격특성인 특질불안 등을 통해 매개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부모간 갈등과 자아분화간 관계에서 특질불안을 매개 변인으로 고려하는 것은 부모간 갈등처럼 가족내 표현된 부정적 정서가 강할 때, 또는 부정적 정서의 경험 빈도가 클 때 불안 정서가 발달(권미애, 김필숙, 박지현, 김태현, 2005; 홍창의, 2003)할 수 있으며 이에 기초한 특질불안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자아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중학교 청소년(이미경, 2005)을 대상으로 부모간 갈등이 자아분화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러한 영향이 청소년 자신의 인성특성인 특질불안에 의해 매개되어 나타나는 영향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 효과 검증 절차를 토대로 중학교 청소년의 자아분화에 대한 부모간 갈등의 영향은 특질불안에 의해 매개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Baron과 Kenny(1986)는 매개 효과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3단계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첫째, 독립 변인(부모간 갈등)은 종속 변인(자아분화)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어야 한다. 둘째, 독립 변인(부모간 갈등)은 매개 변인(특질불안)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어야 한다. 셋째, 독립 변인(부모간 갈등)과 매개 변인(특질불안)이 종속 변인(자아분화)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동시에 투입됨으로써 독립 변인은 매개 변인의 효과를 통제하고, 매개 변인은 독립 변인의 효과를 각각 통제했을 때 매개 변인은 종속 변인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독립 변인은 종속 변인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매개 효과를 완전하게 갖는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셋째 단계에서 독립 변

인과 매개 변인이 각각 종속 변인과 유의미한 관련이 나타나는 가운데, 종속 변인에 대한 독립 변인의 영향력이 첫 번째 단계보다 감소한 경우 부분 매개 효과를 갖는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조건 절차에 근거하여 이 연구에서는 3개의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중학교 청소년의 자아분화에 대한 부모간 갈등의 영향은 특질불안에 의해 매개되는가?

(연구문제 1-1) 중학교 청소년의 자아분화는 부모간 갈등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되는가?

(연구문제 1-2) 중학교 청소년의 특질불안은 부모간 갈등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되는가?

(연구문제 1-3) 중학교 청소년의 자아분화에 대한 부모간 갈등의 설명력은 특질불안을 통제할 때 감소하는가?

중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및 변인간 관계를 매개 효과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 이 연구의 결과는 자아정체감 형성의 발달과업에 직면한 중학교 청소년들의 건강한 자아분화를 지원하는 정보와 자료가 될 것이다.

## 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대구경북지역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 3 남녀 청소년 252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청소년은 남학생 155명(61.5%), 여학생 97명(38.5%)이 있으며, 아버지 학력은 대졸자(123명(44.8%))가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 학력은 고졸이하가 132명(52.4%)으로 가장 많았다.

<표 1> 조사대상 청소년 부모의 일반적 특성(n=252)

변인	구분	사례수(%)	변인	구분	사례수(%)
부연령	40세 미만	14(5.6)	모연령	40세 미만	40(15.9)
	40-44세	103(40.9)		40-44세	160(63.5)
	45세 이상	135(53.6)		45세 이상	52(20.6)
부학력	고졸이하	116(42.1)	모학력	고졸이하	132(52.4)
	대졸*	123(44.8)		대졸	101(30.1)
	대졸이상	17(6.7)		대졸이상	11(4.4)
	결측	6(2.4)		결측	8(3.1)
부직업	무직	3(1.2)	모직업	전업주부	100(39.7)
	생산판매직	76(30.2)		생산판매직	65(25.8)
	사무직	65(25.8)		사무직	50(19.8)
	행정관리직	101(40.1)		행정관리직	33(13.1)
	결측	7(2.8)		결측	4(1.6)

\*대졸은 전문대 포함한 자료임

아버지의 직업은 생산판매직(76명(30.2%)), 행정관리직(101명(40.1%)), 사무직(65명(25.8%))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는 전업주부(100명(39.7%)), 생산판매직(65명(25.8%)), 사무직(50명(19.8%)), 행정관리직(33명(13.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가계 소득의 경우 200만원 미만 28명(11.1%), 200-300만원 미만 71명(28.2%), 300-400만원 미만 79명(31.4%), 400만원 이상 53명(21.0%), 결측 21명(8.3%)으로 200만원에서 400만원의 가계 소득자(150명(59.6%))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 2. 조사도구

### 1) 자아분화 척도

중학교 청소년의 자아분화를 측정하기 위해 Skowron과 Fiedlander(1998)의 자아분화(DSI-R) 척도를 기초로 정경연(2007)이 개발한 자아분화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람들은 내게 지나치게 감정적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나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서면 나는 그들과 거리를 두는 편이다' '나는 나에게 대한 주변 사람들의 지적이나 평가에 지나치게 민감하다' 등의 46문항으로 구성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드물게 그렇다(3점)', '약간 그렇다(4점)', '자주 그렇다(5점)', '아주 그렇다(6점)'의 6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응답가능 점수는

46-276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아분화 척도의 문항간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5로 나타났다.

## 2) 부모간 갈등 척도

Grych, Seid 그리고 Fincham(1992)의 CPIC(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를 권영옥과 이정덕(1997)이 타당화 과정을 통해 사용한 부부갈등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모에 의해 보고된 부부갈등보다 부모갈등에 대한 아동의 주관적 지각과 해석이 자녀의 심리적 적응을 보다 잘 예측한다는 점(Grych & Fincham, 1990)을 고려하여 중학교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간 갈등을 측정하였다. '우리 부모님은 다투실 때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신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겁이 난다' 등의 48문항으로 구성된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1점)' '때때로 그렇다(2점)', '자주 그렇다(3점)'의 3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응답가능 점수는 각각 48-14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간 갈등을 많이 지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간 갈등의 척도의 문항간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2로 나타났다.

## 3) 특질불안 척도

특질불안은 Spielberg, Gorsuch와 Lushene(1970)의 특질불안 척도(STAIC)를 토대로 김정택(1978)이 개발한 것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나는 걱정이 너무 많다', '나는 고민이 많다', '나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자주 느낀다' 등의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그렇지 않다(1점)', '때때로 그렇다(2점)', '자주 그렇다(3점)'의 3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응답가능 점수는 20-6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특질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특질불안 척도의 문항간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9로 나타났다.

## 3. 조사절차

대구경북지역 소재 중학교 중 질문지 조사를 허락받은 5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 3 남녀 청소년 400명을 연구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교를 방문하여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 응답요령을 설명한 후,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질문지는 교실에서 응답이 끝난 후 수거했으며 수거된 질문지 중 부실 기재된 질문지 뿐 아니라 부모간 갈등 변인을 고려하여 부모 모두와 함께 생활하지 않는 모든 자료는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분석에 사용된 최종 자료는 252부였다.

####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9.0 프로그램의 요인분석,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단순 및 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되었으며, 분석결과는 유의수준 .05미만에서 검증하였다.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중학교 청소년의 자아분화에 대한 부모간 갈등의 영향은 특질불안에 의해 매개되는가?의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전 <표 2>에서 관련 변인에 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학교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부모간 갈등은 73.09(13.25), 특질불안은 31.69(7.40), 자아분화는 184.09(23.98)로 나타났다. 각 척도의 문항수와 리커트 척도를 고려해 볼 때, 부모간 갈등(1.52(.28))과 특질불안(1.58(.37))은 2점 이하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분화(4.00(.52))는 4점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중학교 청소년의 부모간 갈등, 특질불안, 자아분화의 평균(n=252)

변인(문항수) 리커트	최소-최대값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문항수
부모간 갈등(48문항) 3점	51-118	73.09(13.25)	1.52(.28)
특질불안(20문항) 3점	20-58	31.69(7.40)	1.58(.37)
자아분화(46문항) 6점	108-241	184.09(23.98)	4.00(.52)

한편 변인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독립 변인과 매개 변인인 부모간 갈등과 특질불안 간에는 상관관계는 .40( $r=.40, p<.001$ ) 정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두 변인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질불안과 자아분화간에는 .65 정도( $r=.65, p<.001$ )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3> 중학교 청소년의 부모간 갈등, 특질불안, 자아분화간 상관관계(n=252)

변인(문항수)	부모간 갈등	특질불안	자아분화
부모간 갈등	1		
특질불안	.40***	1	
자아분화	-.38***	-.65***	1

주) \*\*\* p <.001

(연구문제 1) 중학교 청소년의 자아분화에 대한 부모간 갈등의 영향은 특질불안에 의해 매개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1차에서 (연구문제 1-1)인 부모의 부부간 갈등과 자아분화간 관계를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표 4>의 1차에서 나타나듯 중학교 청소년의 자아분화는 부모의 부부간 갈등에 의해 부적적으로 유의하게 영향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adjR^2=.14$ ,  $\beta=-.38$ ,  $p<.001$ ). 즉, 부모의 부부간 갈등을 높게 지각하는 중학교 청소년일수록 자아분화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Baron과 Kenny(1986)의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다.

<표 4> 중학교 청소년의 자아분화에 대한 부모간 갈등, 특질불안의 단순 및 중회귀분석 (n=252)

분석 구분	독립변인	중학교 청소년의 자아분화				
		B	Std. Error	$\beta$	$adjR^2$	F값
1차	상수	233.89	7.88		.14	41.27*** (df=1,250)
	부모간 갈등	-.68	.11	-.38***		
2차	상수	250.43	5.10		.43	178.70*** (df=1,250)
	특질불안	-2.09	.16	-.65***		
3차	상수	263.13	6.92		.43	95.15*** (df=2,249)
	부모간 갈등	-.25	.09	-.14**		
	특질불안	-1.91	.17	-.59***		

주) \*\* p <.01, \*\*\* p <.001

한편 (연구문제 1-2)의 중학교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간 갈등과 특질불안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에서와 같이 중학교 청소년의 특질불안은 부모의 부부간 갈등에 의해 정적으로 유의하게 영향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adjR^2=.16$ ,  $\beta=.40$ ,  $p<.001$ ). 즉, 부모의 부부간 갈등을 높이 지각하는 중학교 청소년일수록 특질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Baron과 Kenny(1986)의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다.

<표 5> 중학교 청소년의 특질불안에 대한 부모간 갈등의 단순회귀분석

(n=252)

독립변인	중학교 청소년의 특질불안				
	종속변인 B	Std. Error	$\beta$	$adjR^2$	F값
상수	15.30	2.40		.16	48.10*** (df=1,250)
부모간 갈등	.22	.03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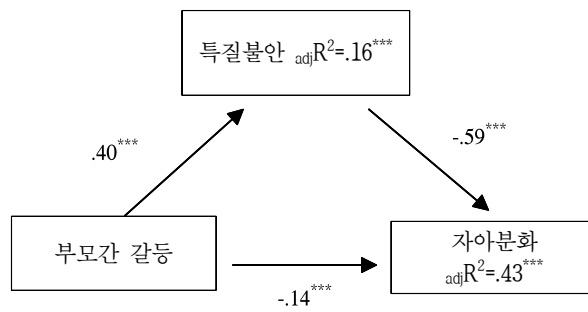
주) \*\*\* p <.001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1-3)인 중학교 청소년의 자아분화에 대한 부모간 갈등과 특질불안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중학교 청소년의 특질불안과 자아분화간 관계를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표 4)의 2차 결과에 제시되었듯, 중학교 청소년의 자아분화는 특질불안에 의해 정적으로 유의하게 영향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adjR^2=.43$ ,  $\beta=-.65$ ,  $p<.001$ ). 즉, 특질불안이 높은 중학교 청소년일수록 자아분화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표 4)의 3차에서 중학교 청소년의 자아분화에 대한 부모간 갈등과 특질불안간 관계를 중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중회귀분석 시 분산팽창계수 VIF 값이 1.19로 나타나 독립변인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 (양병화, 2002)으로 나타났다. 중회귀분석의 조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중학교 청소년의 자아분화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부모간 갈등을 독립변인, 특질불안을 매개 변인으로 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의 3차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두 개의 변인을 동시 투입하여 독립 변인의 효과를 통제했을 때, 독립 변인인 부모간 갈등과 매개 변인인 특질불안 모두가 자아분화와 유의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나 종속 변인인 자아분화에 대한 독립 변인(부모간 갈등)의 영향력은 매개 변인(특질불안) 효과 통제 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38$ ,  $p<.001$ →  $\beta=-.14$ ,  $p<.001$ ). 이러한 연구결과는 Baron과 Kenny(1986)

의 3번째 조건 중 부분 매개 효과를 만족하는 것이다. 즉 중학교 청소년의 자아분화에 대한 부모간 갈등의 영향은 부분적으로 중학교 청소년 자신의 특질불안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 4>과 <표 5>의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경로모형의 계수화하여 중학교 청소년의 부모간 갈등, 특질불안, 그리고 자아분화간 관계를 <그림 1>과 같이 경로모형으로 제시했으며, <표 3>, <표 4>, <표 5>를 토대로 <표 6>에 경로모형 분할표로 각각 정리하였다.



<그림 1> 중학교 청소년의 자아분화에 대한 부모간 갈등과 특질불안간 관계

<표 6> 중학교 청소년의 자아분화에 대한 부모간 갈등과 특질불안의 경로모형 분할표

구 분	상관계수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부모간 갈등 → 특질불안	.40***	.40	.40	-
부모간 갈등 → 자아분화	-.38***	-.38	-.14	-.24
특질불안 → 자아분화	-.65***	-.65	-.65	-

주) \*\*\* p <.001

#### IV. 논의 및 결론

대구경북소재 중학교에 다니는 252명의 남녀 3학년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간 갈등과 특질불안이 중학교 청소년의 자아분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중학교 청소년의 자아분화는 부모간 갈등에 의해 부적으로 유의하게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간 갈등이 높을수록 중학교 청소년의 자아분화는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부모 자녀관계 등 가족관계의 질이 자아분화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김갑숙, 전영숙, 2009; 백양희, 1998; Bowen, 1978)와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부모간 갈등이 중학교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유의한 관계를 보인다는 것은 부모와의 직접적 관계가 아닌 부모간 관계도 청소년의 자아분화에 영향을 미침을 시사하는 것이다. 자녀와의 직접적 상호작용이 아닌 부모와 모 사이에 이루어지는 역기능적 상호작용이 자녀의 자아분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부-자녀, 모-자녀 관계처럼 자녀와 직접적 관계를 맺는 미시체계 뿐 아니라 부-모관계와 같은 미시체계간 관계가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Bronfenbrenner & Morris, 1998)는 브론펜브렌너의 시각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기 자녀의 건강한 자아분화 형성을 위해 부-모간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정 내에서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중학교 청소년의 특질불안은 부모간 갈등에 의해 정적으로 유의하게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간 갈등이 높을수록 중학교 청소년의 특질불안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부모간 갈등이 아동의 우울, 불안 등 내면화 장애에 영향(김정란, 이은희, 2007; 이민식, 오경자, 2000; Holden & Ritchie, 1991)을 미치며, 아동의 특질불안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박정희, 2010)를 지지하는 것이다. 부모간 갈등은 가족의 심리적 상호관계의 부정적 측면으로 부모간 갈등을 자주 그리고 심각하다고 지각할수록 중학교 청소년의 특질불안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특질불안이 높은 사람은 특정 상황에서 더 많은 위협성이나 위협을 지각하며 미래에 유발될 수 있는 불안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각한다는 사실과 함께 이러한 불안성향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에서 위축된 모습을 보이기 쉽다는 연구결과 등(Wood, 2006)을 고려해 볼 때, 부모간 관계의 질 향상은 중학교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셋째, 중학교 청소년의 자아분화에 대한 부모간 갈등의 설명력은 특질불안을 통제할 때 부분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38, p < .001 \rightarrow \beta = -.14, p < .001$ ). 이는 중학교 청소년의 자아분화에 대한 부모간 갈등의 영향이 청소년 자신의 특질불안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됨을 시사하는 것이다.

중학교 청소년의 자신의 특질불안을 통제하면서 자아분화에 대한 부모간 갈등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중학교 청소년의 자아분화는 청소년 자신의 특질불안에 의해 부적으로 영향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청소년 자신의 특질불안이 높을수록 자아분화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가족관계안에서 경험하는 불안이 가족구

성원간의 정서적 친밀감이나 거리감을 조절(Friedman, 1991)함으로써 가족분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유관하다 할 수 있다. 가족관계에서 경험하는 불안만큼이나 청소년 자신이 지니는 성격특성인 특질불안은 미분화된 가족자아덩어리에서 자신을 분리 독립시키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특질불안이 높은 중학교 청소년은 사고에 융통성이 없으며 스트레스 상황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만큼 사고와 감정 사이에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타인과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보다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질불안은 중학교 청소년의 자아분화에 미치는 부모간 갈등의 영향을 상당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 청소년의 자아분화에 미치는 부모간 갈등의 부적인 영향력이 청소년 자신의 특질불안이 통제될 때 상당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중학교 청소년의 자아분화는 부모간 갈등에 의해 영향 받지만 이러한 영향의 대부분은 특질불안에 의한 간접적 영향에 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부모간 갈등은 가족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의 질을 반영함으로써 자아분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은 가족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에 의해 발달될 수 있는 청소년 자신의 특질불안에 의해 나타나는 간접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중학교 청소년의 건강한 자아분화 지원에 있어 부모간 화합을 지원하거나 상호작용의 질을 개선하는 전략만큼이나 청소년 자신의 특질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많은 관심이 모아져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자아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중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고 이들의 관계를 매개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는 중학교 청소년의 건강한 자아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아분화 관련 연구에 경험적 자료를 제시했다는 면에서 학문적 의미를 갖는다. 또한 학교현장에서 교사가 중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하거나 학부모지원 관련 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유의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실용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청소년의 자아분화에 미치는 관련 변인을 부모간 갈등과 특질불안만을 가지고 살펴보았다는 점, 대구 경북지역의 한정된 지역에서 자료 수집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 등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뿐 아니라, 자아분화에 따른 청소년의 환경 적응력을 살펴봄으로써 자아분화의 건강성이 청소년기에 왜 요구되어야 하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 참 고 문 헌

- 권미애, 김필숙, 박지현, 김태현 (2005). 미혼성인자녀가 지각하는 자아분화와 부모-자녀간 정서체계 역동성이 특질불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11), 31-48.
- 권영옥, 이정덕 (1997).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8(1), 65-78.
- 김갑숙, 전영숙 (2009). 청소년의 부모-자녀의사소통과 자아분화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 **가족복지학**, 14(4), 79-94.
- 김남진, 김영희 (2010). 기혼남녀의 자아분화에 따른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및 안정성.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1), 197-225.
- 김정란, 이은희 (2007). 중년 여성의 불안정 애착이 본인의 우울수준 및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적 태도와 부부갈등의 매개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297-319.
- 김정택 (1978). 특질불안과 사회성과의 관계-Spielberger STAI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은미, 최명선 (2008). 부모화 경험과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1063-1085.
- 박정희 (2010). 부부갈등과 초등학생의 표출 불안과의 관계: 자아탄력성의 중재효과. **청소년학연구**, 17(12), 27-48.
- 백양희 (1998). 청소년들의 자존감 향상 및 일탈행위감소를 위한 집단미술치료 사례 연구. **미술치료학회**, 5(2), 145-162.
- 송은하, 방희정, 옥정, 정은정 (2008). 부부갈등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정서적 안정성의 매개 효과. **놀이치료연구**, 12(1), 1-13.
- 양병화 (2002). **다변량 자료분석의 이해와 활용**. 서울: 학지사.
- 오경자 (1992). **청년정신건강**. 서울: 한국청소년 연구원.
- 이영식, 정선호 (1996). 발달학적 관점에서 본 불안-우울 감정분화. **신경정신의학**, 35(1), 23-43.
- 이명옥, 하정희 (2007). 자아분화와 결혼적응의 관계: 우울의 매개 효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4), 519-535.
- 이미경 (2005). 청소년의 가족분화와 대인관계 적응-우울과 불안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식, 오경자 (2000).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지각된 부부갈등과 양육태도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4)**, 727-745.
- 이소미, 고영건 (2009). 자아분화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효과 -갈등대처행동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3)**, 643-658.
- 이신영, 정현희 (2010). 부모의 부부갈등과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 행동: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7(6)**, 147-170.
- 이창만 (1992).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부부갈등과 부부적응.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진아, 신희천 (2006). 부부갈등이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부모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의 매개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3)**, 569-592.
- 정경연 (2007). 부모 및 자녀의 자아분화수준과 아동이 지각한 세대간 가족관계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규완, 송근혜 (2010). 중학생의 기질 및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이 자아분화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0(3)**, 457-477.
- 조은경, 정혜정 (2002). 기혼남녀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갈등 대처 행동 및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1)**, 1-16.
- 최인재 (2007).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분화 및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3)**, 611-628.
- 홍창희 (2003). 정서경험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정서 표현성의 매개모델 검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arlow, D. H. (1988). *Anxiety and its disorders: The nature and treatment of anxiety and panic*. New York: Guilford Press.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 Bronfenbrenner, U. & Morris, P. A. (1998). The ecology of developmental processes. In Damo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pp 993-1028). John Wiley & Sons, Inc.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Erlbaum.

- Erikson, E. (1963). *Childhood and society*(2nd ed.). New York: Norton.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Friedman, E. H. (1991). Bowen theory and therapy. In A. S. Gurman, & D. P. Knistern (Ed.), *Handbook of family therapy* (Vol. II, pp. 134-170). New York: Brunner/Mazel.
- Grych, J. H., & Fincham, F. D. (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 267-290.
- Grych, J. H., Seid, M., & Fincham, F. D. (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perspective: The children perception of interpersonal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64*, 1829-1841.
- Holden, G. W., & Ritchie, K. L. (1991). Linking extreme marital discord, child rearing, and child behavior problems: Evidence from battered women. *Child Development, 62*, 311-327.
- Kerr, M. E., & Bowen, M. (1988). *Family evaluation*. New York: Norton.
- Peleg-Popko, O. (2004). Differentiation and test anxiety i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27*(6), 645-662.
- Skowron, E. A. (2000). The role of differentiation of self in marital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229-237.
- Skowron, E. A., & Friedlander, M. L. (1998). The Differentiation of Self-Inventory: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235 - 246.
- Spielberger, C. D. (1972). Anxiety as an emotional state. In C.D. Spielberger (Ed.), *Anxiety: Current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Vol 1, pp. 23 - 49). Orlando, FL: Academic Press.
- Spielberger, C. D. (1973).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Spielberg, C. D., Gorsuch, R. L., & Lushene, R. E. (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Wood, J. (2006). Effect of anxiety reduction on children's school performance and social adjust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42*, 345-349.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ediation effects of trait anxiety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reports by middle school adolescents in regards to self-differentiation and parents' marital conflicts. The participants were 252 middle school adolescents attended middle schools in Daegu or Gyeongbuk Provinc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Pearson's correlation, single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s, using SPSS 19.0.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Parents' marital conflicts and trait anxiety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self-differentiation of middle school adolescents. (2) Trait anxiety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parents' marital conflicts. (3) Trait anxiety exerted indirect effects on self-differentiation mediated by parents' marital conflicts.

**Key words** : parent's marital conflicts, trait anxiety, self-differentiation

---

2011. 06. 27. 투고 : 2011. 08. 18. 수정원고접수 : 2011. 08. 20. 최종게재결정